

2020년 11월 24일

KIWOOM DAILY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서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엘런 전 연준의장 재무장관 임명에 상승

전미 소매협회,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전년 대비 3.6~5.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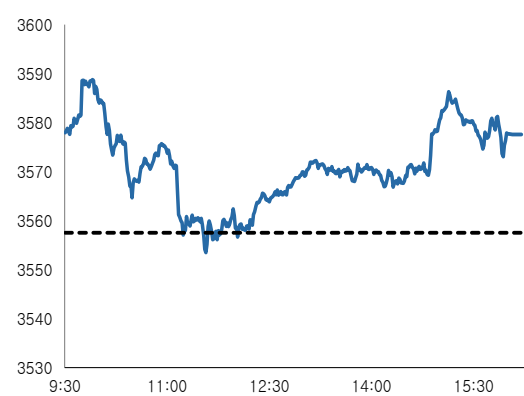
미 증시 변화 요인: 연말 쇼핑시즌, 엘런 재무장관 임명

미 증시는 연말 쇼핑 시즌 기대와 지표 호전,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기대로 상승 출발. 이에 힘입어 소매, 에너지, 레저, 금융 등이 상승을 주도. 그렇지만, 대형 기술주 및 제약,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전환 하기도 했음. 한편, 장 마감 앞두고 바이든은 엘런 전 연준의장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하자 상승폭이 확대 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차익 욕구가 높은 모습(다우 +1.12%, 나스닥 +0.22%, S&P500 +0.56%, 러셀 2000 +1.85%)

전미 소매협회는 연말 쇼핑 시즌 매출에 대해 전년 대비 3.6~5.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지난해 4.0%는 물론 지난 5년 평균 3.5%를 상회. 이는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에 대한 낙관적인 소식에 기댄 것으로 추정. 특히 투자자들은 소비자들이 연말에 쇼핑몰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이 소식에 기반해 소매 판매 업종이 강세. 이런 가운데 지불 수단으로 신용 카드가 41% 사용되고 현금을 주요 지불 수단으로 활용 하는 소비자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인 15%에 불과 할 것으로 전망. 이는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달리 소비자들이 대면 쇼핑을 회피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 소식이 전해지자 카드 관련 기업들이 강세. 그렇지만, 이러한 전망이 이어질 지 여부는 좀더 지켜 봐야 할 듯. 10월 미국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3% 증가에 그쳤고, 미국의 4분기와 내년 1분기 성장률에 대해 속속 하향 조정되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 더불어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 및 추가 실업급여 중단으로 중산층 이하 수입 감소 우려도 부담

이런 가운데 재무장관에 엘런 전 연준의장을 임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폭을 확대. 특히 시장이 우려했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 대신 엘런 전 의장을 선택함으로 해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적극적인 부양책 기대를 높임. 이는 단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법인세 인상을 비롯한 증세 정책을 뒤로 미룰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을 줬다는 점에서 투자심리 개선. 특히 파월 연준 의장과 함께 일했던 점도 연준과 미 행정부 간 정책 공조 기대 또한 높인다는 점에서 우호적. 다만 예견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 영향은 제한

S&P500 일종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동락률	Close	D-1	지수동락률	Close	D-1
KOSPI	2,602.59	+1.92	홍콩항셱	26,486.20	+0.13
KOSDAQ	873.29	+0.36	영국	6,333.84	-0.28
DOW	29,591.27	+1.12	독일	13,126.97	-0.08
NASDAQ	11,880.63	+0.22	프랑스	5,492.15	-0.07
S&P 500	3,577.59	+0.56	스페인	7,981.20	+0.04
상하이종합	3,414.49	+1.09	그리스	700.43	+0.14
일본	25,527.37	-0.42	이탈리아	21,701.79	-0.0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전기차, 금융, 에너지 강세 Vs. 애플 하락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갭(+6.93%), 타겟(+3.05%), 달러 트리(+2.78%) 등 소매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신용카드 등을 통한 지불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비자(+2.10%), 마스터카드(+2.80%), 페이팔(+4.23%) 등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긍정적인 백신 데이터 소식에 기대 디즈니(+3.48%), 부킹닷컴(+1.36%), 카니발(+4.78%) 등 레저 업종과 매리어트(+3.19%) 등 호텔, 델타항공(+4.47%), 보잉(+5.97%) 등 항공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국제유가 또한 상승세를 이어가자 엑손모빌(+6.55%), 셰브론(+6.11%), 코로코필립스(+7.72%) 등 에너지 업종이 급등했다. 여기에 국채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등 안정적인 움직임은 JP모건(+2.88%), 웰스파고(+3.22%), 씨티그룹(+3.19%) 등 금융주 상승을 이끌었다.

GM(+4.02%)은 전기차에 대한 투자 확대 소식이 지속되며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6.51%)를 비롯해 중국 전기차 업체인 니오(+12.45%), 리 오토(+14.48%), 엑스펑(+33.92%)은 중국내 전기차 판매 급증 기대 속 강세를 보였다. 마이크론(+4.53%)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며 강세를 보였다. 반면, 애플(-2.97%)은 이미 아이폰 12 관련 가격이 반영이 되었다는 평가와 애플의 비즈니스 관행에 대해 유럽 위원회가 조사한다고 발표하자 하락했다.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XOP)	+8.91%	대형 가치주 ETF(IVE)	+1.34%
에너지섹터 ETF(OIH)	+9.63%	중형 가치주 ETF(IWS)	+1.61%
소매업체 ETF(XRT)	+3.73%	소형 가치주 ETF(IWN)	+2.45%
금융섹터 ETF(XLF)	+1.88%	대형 성장주 ETF(VUG)	+0.14%
기술섹터 ETF(XLK)	-0.02%	중형 성장주 ETF(IWP)	+0.48%
소셜 미디어업체 ETF(SOCL)	+0.41%	소형 성장주 ETF(IWO)	+1.38%
인터넷업체 ETF(FDN)	+0.13%	배당주 ETF(DVY)	+2.15%
리츠업체 ETF(XLRE)	-0.32%	신흥국 고배당 ETF(DEM)	+0.39%
주택건설업체 ETF(XHB)	+2.22%	신흥국 저변동성 ETF(EEMV)	+0.20%
바이오섹터 ETF(IBB)	+0.15%	미국 국채 ETF(IEF)	-0.20%
헬스케어 ETF(XLV)	-0.26%	하이일드 ETF(JNK)	+0.15%
곡물 ETF(DBA)	+0.78%	물가연동채 ETF(TIP)	-0.08%
반도체 ETF(SMH)	+1.54%	Long/short ETF(BTAL)	-3.2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286.18	+7.09%	+5.57%	+28.92%
소재	441.62	+0.86%	-0.06%	+9.20%
산업재	742.96	+1.64%	+0.22%	+11.12%
경기소비재	1,253.36	+0.81%	-0.33%	+1.73%
필수소비재	683.18	+0.05%	-2.22%	+3.03%
헬스케어	1,262.43	-0.30%	-3.10%	+1.64%
금융	459.26	+1.88%	+0.15%	+11.99%
IT	2,108.98	-0.03%	-1.91%	+3.47%
커뮤니케이션	211.32	+0.05%	-1.48%	+5.67%
유틸리티	321.63	-0.02%	-4.87%	-2.22%
부동산	227.74	-0.34%	-2.42%	+4.42%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한국 주식시장 전망

매물 소화 속 외국인 행보 주목

MSCI 한국 지수 ETF 는 1.94% MSCI 신흥 지수 ETF 는 0.26% 상승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14.4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일 한국 증시는 증가 기준으로 2,600pt 를 상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외국인이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한 적극적인 순매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지난 주 중국 반도체 굴기를 상징하는 칭화유니가 만기 도래한 회사채 13 억 위안을 상환하지 못해 디폴트가 발생하자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의 집중적인 순매수가 유입되었다. 더불어 11 월 20 일까지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1.9% 증가했다는 소식과 지난 주 AMAT 등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강한 개선을 언급한 점도 적극적인 순매수 요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1 월 들어 6.3 조원의 대규모 순매수한 외국인은 반도체와 2 차 전지 업종을 중심으로 액티브 자금이 약 2.5 조원 유입되었고, 대형주 중심 패시브 자금이 3.8 조원 순매수 했다. 이는 미국과 유럽이 코로나 확산으로 수입수요가 급증하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자금이 유입된 데 따른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이 옐런 전 연준의장을 재무장관에 임명해 적극적인 부양책 기대를 높였다는 점은 단기적으로 한국 증시에 긍정적이다. 다만 이미 예견된 내용이라는 점을 감안 상승폭을 확대하는 요인이기 보다는 하락 요인 제거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를 감안 한국 증시는 미 증시 특징처럼 매물 소화 속 외국인의 행보에 따라 변화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 경제지표 결과

개선된 미국 제조업, 서비스업지수

10 월 시카고 연은 국가활동지수는 전월(0.32)나 예상(0.10)을 크게 상회한 0.83 으로 발표되었다. 3개월 평균은 전월(1.37) 보다 둔화된 0.75 로 발표되었다.

11 월 미국 제조업 PMI 는 전월(53.4)나 예상(53.1)을 상회한 56.7 로 발표되었고, 서비스업 PMI 또한 전월(56.9)나 예상(55.8)을 상회한 57.7 로 발표되었다. 시장은 코로나 확산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 기업 활동이 견고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상품 및 FX 시장 동향

위험 자산 선호심리 확대

국제유가는 달러 약세 및 지표 호전, 그리고 백신 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더 나아가 코로나 확산에 따른 수요 둔화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OPEC+ 장관급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또한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달러화는 개선된 경제지표 발표에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엔화는 긍정적인 백신 데이터 및 미국 지표 개선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자 달러 대비 0.7% 내외 약세를 보였다. 역외 위안화는 트럼프의 대 중국 강경 정책 우려 속 달러 대비 0.5% 약세를 보였다. 여타 신흥국 환율 또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다.

국채금리는 아스트라제네카의 긍정적인 백신 소식과 경제지표 호전에 힘입어 상승했다. 한편, 5년물 국채 입찰에서 응찰률이 12개월 평균(2.49배)을 하회한 2.38배, 간접입찰도 12개월 평균(60.7%)을 하회한 56.5%를 기록하는 등 채권 수요가 감소한 점도 금리 상승 요인 중 하나였다. 다만, 폭발적인 코로나 확산 여파로 상승은 제한된 가운데 관망세가 짙은 모습을 보였다.

금은 백신들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약화되며 2% 가까이 하락했다. 구리 및 비철금속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0.51% 하락했다.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43.06	+1.51	+3.58	Dollar Index	92.536	+0.16	-0.11
브렌트유	46.06	+2.45	+5.11	EUR/USD	1.184	-0.14	-0.10
금	1,844.10	-1.82	-2.64	USD/JPY	104.59	+0.70	+0.01
은	23.757	-3.00	-4.66	GBP/USD	1.3322	+0.35	+0.93
알루미늄	1,973.50	-0.98	+1.15	USD/CHF	0.9125	+0.13	-0.03
전기동	7,177.50	-1.37	+0.98	AUD/USD	0.7287	-0.21	-0.45
아연	2,729.50	-2.29	+1.87	USD/CAD	1.3084	-0.08	+0.08
옥수수	433.25	+1.17	+2.12	USD/BRL	5.4341	+0.83	+0.07
밀	604.50	+0.83	-0.04	USD/CNH	6.5831	+0.47	+0.13
대두	1,191.50	+0.89	+3.29	USD/KRW	1110.40	-0.35	+0.10
커피	117.05	-0.85	-1.43	USD/KRW NDF1M	1114.48	-0.09	+0.63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0.857	+3.27	-4.91	스페인	0.069	+0.60	-2.90
한국	1.582	-3.00	-3.80	포르투갈	0.022	+0.20	-5.30
일본	0.012	0.00	-0.90	그리스	0.664	-2.40	-4.80
독일	-0.581	+0.20	-3.60	이탈리아	0.622	-1.00	-2.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